

# 12대 자주총여학생회

## 97년 2차 토론회

**대안없는 비판이 아닌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의 선봉에, 여학우 삶에 근거해서 여학우를 주인으로 세워내는 자주적 여학생회의 실현을 꿈꾸며 우리는 달려간다. 여성해방 인간해방 자주세상의 길로!**

97년 12대 자주 총여학생회의 상은 기본적으로 11대의 겸허한 평가에 의해 그 성과점들은 받아 안고 반성하고 타파해야 할 지점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해결의 새로운 상을 제시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됩니다.

### 여대생의 존재 규명

여대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있어 남학생과의 차이를 먼저 얘기 하기보다 청년학생으로서 여대생의 특성에 대해 바로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학생은 청년학생으로서 정의감이 강하고 선지사상과 시대 추세에 민감하여 민족적 각성이 빠르고 높은 공동체적 지향을 가지며 조직성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기에 정서적이고 다정다감하며 기본적으로 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주위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여대생의 사고 방식은 소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개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나 학과공부에 적극적인 성실성을 발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실현 의지도 높아서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취업을 통한 사회적 자아실현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 집니다. 이는 여대생, 혹은 여성들의 본성이 소극적,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에 주체로 서고자 하는 자주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실성이 좁은 범위에 제한되어 있으며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학생의 이런 긍정적 본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 본성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녀 차별 구조를 이용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이 여대생들의 사회진출을 봉쇄하고 있고, 그나마 열려있다고 생각되는 전산, 교직, 공무원, 통역, 번역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조차도 여성들끼리 경쟁을 유도하여 임금을 저하시키고 극히 제한된 진출밖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속에서 자신의 삶을 힘겹게 헤쳐나가는데 지쳐 결혼을 통해 편안한 삶을 구하고자 하는 복고풍 여학우들이 등장한 것을 한 개인의 '의식부족' '능력부족'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 일까요? 그리고 성모순, 성차별의 왜곡된 의식만이 여성들의 자주적인 삶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일까요?

본질은 언제나 능동적입니다.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정신이 바로 본질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어나가기 위해 본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조직

하고 투쟁하며 승리를 일구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 또한 예외 일 수는 없습니다. 여성이 자기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나서며 주인 중체로 서기 위해 자기 삶과 민족의 삶을 일치시켜내는 것 그것을 바로 여성자주화 사상이라 일컫습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 여학우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생각됩니다.

### 그렇다면 여학우들의 올해의 정세는

올97년 대선을 통해 김영삼은 또 다시 자신의 사생정권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노동법 안기부법의 개악으로 거대한 친미보수대연합구성의 발판마련을 위해 5,6공세력의 단질이 아닌 끌어안기와 전, 노 일당의 감형처분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영삼의 집권4년 동안 수 많은 여성정책은 허구였음을 알았고 식민 자본 정권의 본질에서 우리 여성들은 이배 삼배의 억압을 당했기에 올 대선을 통해 정신대 문제완전해결과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김영삼 정권 타도 투쟁을 일구어 가는 것이 바로 여성자주화의 올바른 실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불어 경북대 여학생 운동의 내부정세는

먼저 경북대 여학생 운동의 조직적 상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봅시다.

여학생회는 분명 8천 여학우를 대표하는 대중조직입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포괄해야 할 여학우들은 8천 여학우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층단위 여학생회 즉 단대여학생회가 없는 단대가 많음으로 인해서 실지로 그들의 요구를 다 받아안는다는 것은 무리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층단위를 잃고 우리 여학우대중을 조금씩 잃어갈 때 여학생운동은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근 몇 년을 내려 오면서 극단적으로 말해 경북대 여학생운동이 사향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즉 기층단위를 잃고 조직력을 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의 명확한 상은 경북대 여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중요한 단서라 생각합니다.

네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학생운동을 주도해 가야할 간부들을 인선하는데 있어 그들을 운동의 관점으로 인선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랬다손 치더라도 준비기 사업을 통해 내실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나 충분한 교양이 부족하여 활동가로서 대중간부로서의 체화도 느려 명실상부한 여학생운동의 활동가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또한 그렇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북대 여학생운동이 93년까지 겪어오면서 비약적 도약을 가져와 기존에 만들어진 대중사업은 많으나 질적으로 하락되어진 간부들의 부족한 역량으로 꼭 해야할 사업으로 억지로 따라가야할 사업으로 받아안아지면서 8천여학우들의 시기별 정세나 동향, 그리고 의식흐름과 의식수준을 먼저 면밀히 분석해보는 과정이 빠짐으로써 여학일꾼과 여학생회가 유리되어진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다.

세 번째로, 그것은 또한 묻고 알리고 라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 즉 투쟁의 필요성을 근본적인 합의로부터 내어오고 거기에서 내어올 수 있었던 성과점을 알려내면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투쟁에 대한 확신도 만들어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사업을 치워내고 충분히 학우들과 평가하고 성과점을 받아안기 보다는 다시 또다른 사업에 목을 매야 하는 사업의 연속이었다.

네 번째로, 마찬가지로 연유로 인해서 각 단위와 중앙과의 총화지점이 다르고 매 시기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97년이 경북대 여학생회운동의 소생기로서 기층의 강화는 하루세끼 밥 먹어 생명을 유지시키는 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첫 번째 기치

### 반미 반김 투쟁은 여성자주화의 필요조건

올한해 선봉대를 조직하고 조직적으로 여학단위의 투쟁으로 만들어 내었던 정신대 투쟁,  
벤넷 빌리리 와 이기순씨의 죽음으로 시작된 주한미군 철수 투쟁,  
연대항쟁을 통해 현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허구성을 깨발리는 투쟁

이러한 투쟁은 공통적으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김 반미 투쟁으로 나아가야함을 보여준다  
민중주도 민주대연합구도를 형성하여 대선을 통해 민주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정부를 만들어나가  
는 것은 단지 어떤 민중후보를 세우는 방안이 아니라 5.6공의 사생아였고 철저하게 민중과 괴리  
되었던 김영삼을 몰아내어야만이 김의 또다른 사생정권 수립의 노력에 썩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  
다.

즉 민중의 엄청난 역량에 어떻게 지금의 정세에 맞게 반김 투쟁의 일주체로 청년학생의 역할을  
높여내는가가 관건이라면 여학단위의 모든 투쟁 또한 중국에는 변혁투쟁이며 근본모순의 해결은  
김타도임을 명확히 하도록한다..

구체적으로

#### 첫째. 정신대 문제 해결에 대해

96년에 완전해결하자는 기치 아래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관건이 바로 김영삼 정권 타도  
에 있다고 했었다. 올해 완전해결할 수 있는 정세였으니민간위로금 철폐투쟁과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김영삼타도 투쟁을 하반기까지 강력히 벌여 내지 못했다.

얼마전 또 일본정부는 한국의 노동자 정국을 틈타 할머니 7분에게 '국민기금'을 지급해 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03정권의 그에 대한 반빠른 대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요원한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책임과 비인도적 범죄행위로 인한 국가의 책임을 국민개인의 책임으로 환  
원시켜버린 국가는 없다. 국민은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고 세금을 내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에 동  
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법적 책임의 주체가 결코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이 이 '국민기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에 다시 한 번 65년 한일협정과 같은 오류를 남기게 될 것이며,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와 민  
족의 자존심은 또 한 번 역사속에 그대로 묻히고 말 것이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범죄 인정도  
하지 않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채 이제 국제적으로 면죄부를 얻게 되고, 자신있게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평화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  
화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군국주의 일본으로 부상될 것이다.

한편, 이렇게 힘들게 참아내고 이겨내고 있는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은 더 이상 고통속에서 살아  
가도록 방치해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52년으로 끝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  
이 외세에 빼앗겼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 어머니들을 침략자의 성노예로 빼앗  
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할머니들을 우리 민족의 품으로 보듬어야 할 때이다.  
작년 한해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의 분위기로 민족복원을 흔들리게 했다면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  
고에 또한번 유린당하고 국민기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머니들을 지킴시  
다.

또 한 번 전력전주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역사를 만들기 위해...

즉 1.정신대 할머니 후원회를 건설하고(몇 년이되든 장기전이되므로 수위 높은 두생이라 할 수  
있다. )

2.지속적인 강연을 통해 또 한 번 여론을 형성하여

3.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정세 대응으로 내용을 생산한다.

## 둘째. 조국통일 투쟁에 대해

이기순씨 살인 사건을 통해 밝혀졌던 수한 미군 철수 투쟁은 결코 시기별로 더뜨려지는 사안별 투쟁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규정지어주는 주한미군과 이에 의해 식민지 한반도의 여성은 유린당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주한미군에 의해 우리 이남여성들이 한두번 당했나라는 반응은 이제는 주한미군철수 투쟁에서 조국통일 투쟁으로 한단계 더 수위 높은 투쟁으로 가져가야함을 얘기한다 하겠다.

단순한 편지 교류나 이북의 정신대 할머니와의 연대투쟁이 아니라 민족 대단결의 사상으로 조국통일 투쟁을 바라보며 여기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북한여성바로 알기였다. 작년 설문조사에서 자주교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여학우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한다. 초보적으로 북한여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시키는 작업부터 차근차근해야하지 않을까?!

그것과 더불어서 반미를 고양시키는 작업을 조국통일 투쟁에서 풀이 내면서 주한 미군 철수 투쟁으로 나아간다.

가치있는 것.

## 셋째. 김영삼의 허구적인 여성정책

### 즉 성을 이용한 권력 남용

올해 대선을 이용해 김영삼은 여성들의 표를 끌어모으기위한 사탕발림용 여성정책을 홍수처럼 내 놓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작년 연대항쟁은 우리에게 김영삼의 여성정책이 말짱 허임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주었다. 헌데 97년도 새로이 민족복헌의 주인이 될 새내기들은 각종 반공 훈련을 통해 연세항쟁을 좌경폭력세력의 폭동 썸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연세 항쟁을 다시 한 번 주도면밀 분석하여 올바르게 해명할 책임이 있으며 성희롱이 있었음은 누구나가 명백히 예기하기에 그것을 중점으로 알려내어야 할 것이다.

### @@김영삼정권의 여성 정책에 대한 평가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 정책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 정책은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즉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을하여 성에 기인한 사회적 차별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여성 정책이라 한다. 그리고 정책의 평가는 정책 내용 자체를 포함하여 정치 행정 체계 내부에 대하여 시정 조치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우선 김영삼 정부가 해하고 읽는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여성 정책이라는 이름에 값하는가를 알아보는 여성 정책 평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 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여성관을 분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성운동 내에서 합의되고 ILO, UN 등 국제 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여성정책이 기반해야 되는 여성관의 핵심적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 여성도 자신이 가진 적성과 능력에 따라 병등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병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평등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것,

둘째 여성이 생리 임신 출산 수유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난 이를 기본으로 여성을 자녀 양육자이며 가사 담당자로 역할규정하여 전통적 성별 역할 분업을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 남녀는 공동으로 가정과 직장 정치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기업은 법제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시기 신한당의 대선공약, 제 7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중 여성개발 부문계획 그리고 여성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조동부, 보사부, 교육부, 정무장관(2)실 등의 93년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토대로 정부의 여성정책의 방향과 1년 실적을 노동, 성, 교육, 정치, 가족, 복지영역에서 분석해 보면 우리는 이 지배이데올로기관가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기반한 여성관이 전통적 가부장적 원칙속에 견고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일차적 은근치는 가정내에 있고, 남편에 의해 대표되며, 여성의 바람직한 역할은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사노동이다. 따라서 여성은 생사계의존자이며, 혹 직업을 가지는경우에도 생계보조자일 뿐 생계 책임자는 아니다.

두 번째 특성은 개혁의지가 전혀 없는 정세<sup>정</sup>이라는 점과 정책의 후진성이다. 올해 있었던 연세대 항쟁에서 보여진 공권력남용으로 인한 성추행, 폭행과정과 시대에도 맞지 않는 미니스커트 단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03정권의 이중적 잣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여성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은 '여성의 역할이 가사노<sup>노</sup>의 책임을 혼자 지면서 직업 활동을 양립하도록 할 수 있는 가'로 잡힐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성의 생존을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며 필요에 따라 어떻게 효과적인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로 바꾸어질 수 있다. 요컨대 여성은 노동권 평등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을 보았을 때 고용<sup>용</sup>대는 준문직이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시간제 근무 재책근무,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 여성고용불안정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계는 가정을 가진 주부들이 정규직처리 시간에 속박되지 않고 편리한 시간, 장소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새로 제정하려는 고용보호법에서도 여성노동자는 상당부분이 제한되어 (우선 적용대상이 1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되고 시간제 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됨) 실업시 책임이 가정과 남자에게로 밀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한가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으로 가족의 생계가 남성에게 의해 여성의 생계가 보장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여성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가사노동과 병행하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노동시장 참여가 촉진되었으며 여성의 요구또한높아지고 있지만 비정규 여노동자에게 법적모소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여성의 취업구조의 불안을 낳고 있다.

이에 이러한 허구적인 김영삼의 여성정책을 까발리는 투쟁또한 김영삼 타도 투쟁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 두 번째 기차

### 단여 건준위와 단여 강화로 경북대 여학생운동의 기층 강화

자주적 여성상의 구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여학우의 현재적 고민을 총화하고 발전시켜 여학우가 자기 삶에 있어 주인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자주'의 상을 그리는데 있어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왜곡된 성문화 유입과 기형적인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여성의 존재를 개별화 객체화시키면서 여학우들이 근본적으로는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 이에 현재적 여성의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여학생회 단위의 건설은 필수로 놓여진다..

보다 구체화된 자주적 여성상을 그리는데 있어 여학우 개개인이 고민을 총화하고 여학생회내로 끌어냄에 있어 단대 여학생회 강화와 함께 단대 여학생회장의 대중간부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과단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여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여학생회 풀간 단위를 보다 튼튼히 세워 내야 한다. 이는 중앙운위의 역할을 높여 내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할 것이다.

1. 단여건준위 : 각 단대별 상황을 다시 한 번 실사 총화하여 각 단대별 주<sup>주</sup>를 마련하는 것 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2. 단여강화 :
3. 중앙운위의 역할 강화
4. 간부들의 사상적 강화

# 결론적으로 ,반미 반김 기치아래 경북대 여학우들의 여성 자주화 사상의 물결을 만들어내고 그 실현은 아래로부터의 강화 실현으로...

그렇다면 과제는

## 사상운동 영역에서

사상운동이라함은 여성 자주화 사상을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상을 대중화 하기 위하여 이 사상을 일관되게 매 사업속에서 녹여내어야 한다는 것과 이것은 가장 적극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 1.여성자주화 사상의 올바른 이해를 단위 간부로부터
- 2.아침이슬을 총여학생회에서 따로 실시 하면서 학우들의 의식흐름을 주도하고 잡아나간다. ,  
경대여성을 통해 총여학생회의 성과점을 알려내고 총화한다. . .
- 3.일상적인 선전을 강화 한다. : 학우들과 메시지를 근본적인 것부터 합의 하는 과정으로 만든다.

## 조직운동 영역에서

여성자주화 사상을 대중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 1. 단어 건준위

97년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장으로 필수적인 요건

단대에 맞는 기층 건설과 더불어 올바른 주체를 세우고 주체가 단대에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의 지도가 필수적일 것이다. 즉 작년의 경우 중앙의 역량부족으로 구체적인 주체가 없었으나 명확하게 주체를 세우는 작업은 꼭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주체는 총여학생회 부회장과 1인이 될 것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의 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단대 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하거나 단대 통일 소모임이나 사과반에 커리를 제공하거나 마찬가지로 간담회를 통해 단대학생회가 주도적으로 고민을 받아안고 주체를 세우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2. 단여강화

각 단위의 상황에 맞게

인문대의 경우 -여연이나 탁아 소모임을 통한 강화

-과 여학생회가 작년과 달리 제대로 세워진 곳이 없다 따라서 과 여학 재건 사업을 통해 과 학생회와 끊임없는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주체를 준비중이다.

사범대의 경우 화학교육과의 과 회장님이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세울 수 있었다 따라서 이과를 모범으로 선포하여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것 같다,

사회대의 경우 2개과 외의 다른 과 여학생회 건설 준비

농대의 경우 과여학생회 체계의 발전이 목표이고 실지로 작년에 2개과에서 여학생회를 세웠으나 내용의 부족으로 지속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단대 여연을 만들어서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는 과 여학생회장님을 육성해 내어야...

### 3. 간부사업

각 단위 여학생회 간부들이 여성자주화 사상을 올바르게 틀어쥐고, 전체운동과 여학생 운동의 관계를 해명하여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을 높여낸다.

간부 재생산

-간부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지속적인 교양의 커리를 제공하고 간부대회를 통해 총화하면서 모든 일꾼이 같은 감으로 일년 사업을 만들어 간다.

## 대중운동 영역에서

1. 여성자주화라는 우리의 사상을 명확히 틀어쥐고 조직 영역에서 제기된 간부를 주체로 세워낼 때에 대한 고민과
2.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과 주한미군철수 투쟁 김영삼의 여성정책을 고발하는 투쟁을 통해 여성자주화의 실현은 **김영삼 타도임으로 일관된 흐름**을 매 시기 대중 사업을 통해 풀이낸다.
3. 일상선전을 8천여학우들에게 실지로 다가설 수 있는 여학생회(일상에서 다가가는 여학생회)를 만들어내고 8천여학우들의 의식흐름과 함께 한다.  
-성폭력 추방  
이것은 벌써 복지요구안이 본관에서 통과 됨으로 성과점을 함께 공유한다.

**2만이 함께 개척한다. 진정한 남녀공학의 실천으로 희망의 97을 !!**

**12대 자주 총여학생회**